

사전 안내

카이오초라는 지명은 원작 만화에서 나오는 마을 모리오초를 패러디한 가상의 마을입니다. 이는 단순 패러디로, '카이오초'가 나오는 부분을 원작인 모리오초나 원하는 마을 이름으로 개변해도 진행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스탠드의 개념만 파악한다면 플레이에 지장은 없으나, 4부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본 시나리오의 스토리는 원작 스토리의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원작 설정을 최소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중 npc들의 "대사"는 RP 참고용입니다. 대사 그대로 RP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변 역시 자유롭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스탠드 유저가 아니더라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흡혈귀, 파문전사, 어둠의 일족 등 다양한 플레이어로 시작해보세요.

PL이 특수 룰을 너무 어려워 한다면 프라이즈:녹음기의 존재를 PL들에게 알려주세요. 일종의 이지모드입니다.

진상

카이오초 라디오 '전' 메인 진행자 *코바야시 케이'. 말할 때 영어를 섞어 쓰는 버릇 덕에 '오케이 씨'라고도 불리는 이 인물은 사실 스탠드 유저입니다. 카이오초 라디오의 첫 방송 때부터 함께 해 30년간 유명세를 올려온 베테랑 진행자지만, 스튜디오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메인 진행자 역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원한을 품고 퇴근 전, 스튜디오 마이크에 자신의 스탠드 <라디오 헤드>를 부착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케이의 목표는 방송국 폭파가 아닙니다. 30년간 동고동락한 방송인만큼 방송국 역시 오케이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현 진행자가 된 PC1의 방송 진행을 막고, PC2가 보는 앞에서 폭탄(마이크)를 방송국 바깥으로 집어 던져 스태프들을 구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져야 하므로, 오케이는 익명으로 배달부들을 부르거나 어린아이를 시켜 화장실을 살펴보게 만드는 등 폭탄이 설치된 상황임을 숨기려는 PC들에게 방해 공작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한창 방송 중인 스튜디오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PC들과 스태프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실수입니다.

PC들은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오케이의 허점을 찔러 폭파 계획을 저지해야 합니다.

*라디오 헤드의 멤버 그린우드와 라디오 헤드 앨범명 《OK COMPUTER》에서 유래했습니다.

PC 사명

번호	pc 사명	비밀 사명
1	당신은 카이오초 라디오의 메인 진행자이다. 정확히는 메인 진행자가 된지 12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승진한 뒤 첫 출근이 된다. 당신은 평소대로 방송국에 출근해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영광의 첫 방송을 망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방송국에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방송을 멈추면 안 돼! 내 앞으로의 커리어가 달려있다고! 당신의 사명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이다. 당신은 어빌리티 : 《굿모닝 카이오초!》를 가진다.	쇼크 : PC2 방송국 휴게실에는 자신의 팬들이 와 있다. 그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방송 시작 전, 그들이 건넌 따뜻한 미소와 열띤 응원을 아직도 기억한다. 방송은 어찌되든 좋아. 하지만 사람들이 도망칠 시간만큼은 벌어야 해! 그러니까 절대로 방송을 멈추면 안 돼!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다.
2	당신은 카이오초의 경찰이다. 카이오초 라디오의 게스트로 초대받아 시간에 맞춰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지만... 방송국에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방송을 멈추면 안 돼! 방송국 측이 폭탄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테러범에게 들키면, 한 발 먼저 폭탄을 작동시킬지도 모른다! 당신의 사명은 《테러범에게 들키기 전에 폭탄을 해체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빌리티 : 《잠깐 화장실에!》를 가진다.	쇼크 : PC1 당신이 왜 경찰 신분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초대되었는지 아는가? 카이오초의 베테랑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 화려한 경력에 흠집을 낼 수는 없다... 오히려 생방송 도중 테러범을 잡으면 유명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방송을 멈추면 안 돼!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테러범을 잡는 것》이다.

시나리오 특수 어빌리티

굿모닝 카이오초!			
종류	서포트	지정 특기	없음
효과	자신의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어빌리티를 사용하면, PC1이 진행 멘트로 시간을 끄는 동안 다른 PC가 배경 제한없이 핸드아웃을 대신 조사해줄 수 있다.(장면 권한은 본인에게 있으며, 정보 또한 자동으로 공유받는다.) 또한, 이 어빌리티를 사용하면 《미디어 이스케이프》1d6표를 굴려 방송 중 진행할 콘텐츠를 정한다.		
해설	카이오초 라디오 시작 멘트. 지난 30 년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한다.		

잠깐 화장실에!			
종류	서포트	지정 특기	없음
효과	자신의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어빌리티를 사용하면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하며 《화장실》 배경으로 지정된 핸드아웃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이 어빌리티를 사용한 PC는 5분 동안 말을 하지 않아도 의심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해설	생리 현상은 누구나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 화장실을 빌미로 화장실을 살피러 가자!		

시나리오 특수 룰

《의심도》

PC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라디오를 듣고 있던 범인이 폭탄을 알아챈 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PC**들이 **1**분 이상 아무 발언도 하지 않는다면 의심도를 **1** 올립니다. 의심도가 **5**에 도달하면, 범인은 폭탄이 들켰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폭탄을 가동합니다.(=배드 엔딩 표를 굴리거나 마스터 장면 <제 3의 폭탄>으로 넘어갑니다.)

단, 마스터 장면에서는 의심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와 화장실》

본 시나리오에는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한 핸드아웃과 <화장실>을 배경으로 한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PC**들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 있다는 설정이며,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한 핸드아웃을 조사하는 건 자유롭지만 화장실이 배경인 핸드아웃을 조사하려면 특수한 어빌리티 사용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이스케이프 (1D6)

호러 이스케이프를 패러디한 표. 생방송 도중 자체 콘텐츠를 진행한다는 컨셉입니다.

GM은 프로그램 표와 진행방식을 PC1에게 설명해주고, GMPC로 참가해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번호	콘텐츠 이름	진행 방식
1	~카이오초의 풍류를 찾아서~	GM은 PC1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묻는다. PC1이 대답한 곡이 세션의 BGM이 된다. 음악이 재생되는 동안은 발언하지 않아도 의심도가 오르지 않는다.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화 상담소	청자들이 전화로 고민상담을 해온다.질문 내용은 GM이 임의로 결정할 것. 질문을 3개 이상 답하면 콘텐츠를 종료한다.
3	도플갱어? 성대모사 자랑	청자 중 한 명이 전화로 PC2 혹은 PC1도 알 법한 유명인의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면 PC1에게 대결을 요청해온다. 대결에 응하면 《소리》로 판정, 판정에 성공한 쪽이 더 똑같이 따라한 걸로 판정하며, 둘 다 성공했을 시 숫자가 더 큰 쪽이 이긴다.(동점일 경우 재대결을 요청할 수 있다.)
4	그것이 알고 싶어 미치겠다!	GM은 빈칸이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 예시▼ 태풍이 넘지 못하는 선은 []이다. 1. 적도(정답) 2. 위도 3. 디오 브란도 정답을 맞춘 PC의 이성치를 1 회복한다. 틀렸다면 이성치를 1 차감한다.
5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말잇기	청자(GM이 만든 PC)와 끝말잇기를 한다. 단어가 20개를 넘어가면(혹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GMPC 쪽에서 패배를 인정한다며 승패를 결정할 것.
6	밀착 취재! 게스트의 은밀한 비밀	PC1이 게스트인 PC2에게 질문공세를 펼친다. 질문의 내용은 PC1이 결정한다. 예/아니오로 대답이 가능한 질문만 허용하며, 5개까지 질문할 수 있다. 질문을 회피할 경우 PC2의 비밀 사명이 공개되니 주의할 것.

도입

등장인물 : PC1, PC2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은 7시 50분. 신카이 방송국이 가장 떠들썩할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아침 출근길에 심심풀이로 트는 한 시간짜리 방송을 만들기 위해선 수 일에 걸친 준비와 수십 명의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PC1, 당신도 그 인력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PC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카이오초 라디오의 담당 PD가 선글라스를 올려 쓴 채 다가옵니다.

“진행 준비 중이야? 여긴 유서만 깊지 별 것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전임자 농처럼 술 먹고 나자빠져있지만 않으면 너도 이걸로 몇 십년은 해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PC1의 어깨를 도닥이던 PD 뒤쪽으로 막내 스태프 PC2와 함께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PD님! (PC2의 이름)씨를 모셔왔어요!”

“드디어 게스트가 오셨구만! 인사들 나눕시다. 이쪽은 메인 진행자 (PC1 이름), 이쪽은 게스트 초청에 응해주신 (PC2 이름).”

PC들의 만남이 끝나면 PD가 스튜디오 안의 녹음실로 두 사람을 이끕니다.

“자, 이게 방송에 쓸 마이크. 이 녀석도 우리 라디오랑 같이 짬 좀 먹었지.”

//핸드아웃 《마이크》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는 뭐야? 시끄럽게. 막내야, 갖다 놔라.”

마이크 옆에 뽀뽀뽀뽀 소리를 내며 켜져 있던 녹음기를 막내 스태프가 받아듭니다. 막내 스태프는 버튼을 몇 개 똑딱거리더니, 녹음실 안에 있던 방 안에 녹음기를 던져눅습니다.

“저 방은 스테프 룸인데, 그냥 창고야 창고. 마이크가 먹통나면 녹음실에서 나올 필요 없어. 그냥 저 방에서 꺼내 쓰면 돼. OK? 아니... 나도 모르게 전임 녀석 말버릇이 옮았네. 여튼 방송에 지장없는 선에선 뭘 하든 상관없어.”

//핸드아웃 《스테프룸》이 공개됩니다.

“원래 우리 방송은 애드리브! 애드리브 위주라고. 정 모르겠음 예전 회차에서 했던 컨텐츠 그대로 가져와도 돼.”

//미디어 이스케이프 표가 공개됩니다.

“이 안에서 내는 소리는 전부 라디오에 나가니까, 스태프한테 말할 게 있으면 수신호 하거나 글씨로 써서 유리창으로 보여주면 돼. 그럼 9시까지 수고해!”

격려의 손짓과 함께 PD와 막내 스태프는 녹음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유리창 바깥에선 음향 담당 스태프가 아무 이상 없다는 표시로 PC1과 PC2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시계바늘이 8시를 가리키자, 경쾌한 음악이 울려퍼집니다.

드디어 방송 시작입니다. 시작 멘트는 준비되셨나요?

//PC1이 시작 멘트를 완료하면 도입을 종료합니다.

추천 BGM : JoJo's Bizarre Adventure: Diamond is Unbreakable OST - Morioh cho Radio

스튜디오 장면표 1D6

번호	장면 내용
1	갑자기 특정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그걸... 그걸 뭐라고 하더라?
2	큰일났다! 방송 도중 재채기가 나올 것만 같다...!
3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회심의 개그를 시도해볼까?
4	화제를 좀 돌려보기로 했다. 최근 유행 중인 ‘그것’은 어떨까?
5	MC(메인 진행자)가 바뀌었으니 소개를 해야겠지?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를 해볼까...
6	음, 말하는 도중 혀를 씹었다...

마스터 장면

제 1의 폭탄

조건 : 도입이 끝난다.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나갈 때 쯤, 유리창 너머로 막내 스태프가 다급하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음벽에 묻혀 목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창백한 얼굴로 입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봐선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안을 한 바퀴 돌며 허둥대던 막내 스태프가 마지막으로 PC1과 PC2를 향해 휘갈긴 글씨의 메모를 들어보입니다.

[화장실에서 시한폭탄 발견!]

[1시간 뒤 폭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온 막내 스태프. 그 뒤로 PD가 긴장한 얼굴로 PC들을 향해 수신호를 보냅니다.

[방송 계속해]
[경찰 불렀음]
[범인 찾는 중!]

한 시간 뒤는 카이오초 라디오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 멈춰도 되는 걸까요?

//핸드아웃 《시한폭탄》, 《기웃대는 아이》를 공개합니다.

제 2의 폭탄

조건 : 1사이클이 끝난다.

방송을 시작한지 30분 가량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든 힘겹게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유리창 너머로 스태프가 메모를 보여줍니다.

[잠깐 광고 돌립니다! 광고 멘트 부탁드립니다!]

PC들이 광고를 내보내고 나면, 담당 PD가 황당한 얼굴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을 늘어놓습니다.

//핸드아웃 선물을 공개합니다.
//이 선물은 제 2의 폭탄 장면이 끝나면 파기되며, 조깅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PD는 PC1의 방송을 축하한답시고 팬들이 선물들을 보내왔으며, 이것 외에도 누군가가 스튜디오 앞으로 단체음식을 배달시켜 방송국 안이 배달부들로 바글바글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선물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봉투에 똑같은 썰로 봉해진 편지가 세 통 있습니다. 내용은

평범한 응원글이지만, 도중에 색깔이 다르거나 강조 표시가 된 글씨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데코레이션일까요? 아니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편지1	편지2	편지3
[라디오 방송]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들을게요! :D	꿈을 향해 노력하는 직장인입니다. 주변인으로부터 [포기해라]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라디오를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오초에 [제 2의 폭탄]을 안겨줄 대박 방송!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글씨들만 따로 모아보면, 나오는 내용은...

[라디오 방송] / [포기해라] / [제 2의 폭탄].

편지의 진짜 내용을 알아낸 PC는 《죽음》으로 공포 판정.

PD가 두 번째 폭탄의 소식을 듣게 되면 무척 놀라며, 들어온 배달부들을 마저 내보내기 전까진 좀 더 방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재개하려던 중, 정체불명의 괴한이 스튜디오에 난입해 고향을 지릅니다.

“이보세요! 전 여기 라디오 팬인데요! MC가 오케이 씨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어찌된 일입니까!”

“어? 어어? 맘에 안 들면 듣지 말 것이지 괜히 시비야! 방송 중이니까 얼른 나가쇼!”

PD가 험악한 얼굴로 괴한을 향해 으르렁대지만, 그도 나갈 생각이 없는 듯 주변 기기를 끌어안고 스태프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려면... 그를 내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의 팬>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오케이의 팬은 스탠드 유저가 아니므로 스탠드 배틀을 할 수 없습니다.

전투가 종료되면, PD가 ‘오케이가 팬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저런 진상도 있을 줄 몰랐다’며 마무리하고 장면을 종료합니다.

▼오케이의 팬 데이터▼

오케이의 팬	위협도 : 1	속성 : 인간	생명력 : 6
호기심	정서	특기	<소리>
어빌리티	기본 공격 <소리>		
해설	전 진행자 코바야시 케이의 팬. 진행자가 하루 아침에 바뀌자 항의하러 왔다.		
플룻	1D3+3		

제 3의 폭탄

조건 : 의심도가 끝까지 차오른다. 혹은 전투에서 **PC**들이 사망한다.

방송 도중, 갑자기 마이크에서 뻘- 하는 이상야릇한 소리가 납니다. 불길한 전자음이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지자 유리창 너머의 방송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보다못한 **PD**가 녹음실 문 손잡이를 열어젖히자...

한줄기 섬광과 함께, 모든 의식이 날아갑니다.

캄캄한 어둠 속입니다. 이것이 심연인가? 그런 철학적인 부류의 물음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입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뇌까지 내리꽂히는 이명에 바로 옆 사람의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 사이로 스며드는, 한 기묘한 외침이 있습니다.

*“바이... 처... 더스...트...!”

눈을 뜹니다. 원래 뜨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보다 스튜디오 안의 시계에 시선이 먼저 꽂힙니다. 시간은... 8시가 되기 10분 전. 방송 시작... 전?

“드디어 게스트가 오셨구만! 인사들 나눕시다. 이쪽은 메인 진행자 (**PC1** 이름), 이쪽은 게스트 초청에 응해주신 (**PC2** 이름).”

이 말... 기시감이 듭니다. 이 또한 기회겠죠. 이번엔 잘해봅시다.

//도입부터 시작합니다.

*원작 4부의 시간을 1시간 뒤로 되돌리는 스탠드 《바이처 더스트》의 패러디입니다.

패러디일 뿐 진짜 바이처 더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발동된 후 1시간이 초과해도 **PC**가 죽지 않습니다.

무사 탈출

조건 : 핸드아웃 《기웃대는 아이》 조사에 성공한다.

방송 진행 중, 유리창 너머로 경찰관이 다급하게 뛰쳐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로부터 무언가 전해들은 막내 스텝은 말을 듣기 무섭게 입을 떡 벌립니다. 다급하게 펜과 종이를 꺼내든 그는 재빠르게 휘갈긴 뒤 **PC**들이 있는 방송실 쪽을 향해 번쩍 듭니다.

[방송국 내 사람들 모두 탈출 성공!]

막내 스텝은 손가락 살이 눌릴 정도로 유리창에 종이를 들이대다가, 아차! 하는 표정을 짓더니 그 밑에 추가로 글씨를 덧붙입니다.

[우리만 빼고ㅍㅍ!!]

호두처럼 잔뜩 주름진 턱에 울망울망한 눈, 종이를 잡은 손이 바르르 떨리는게 보이지만...

방송은 계속 됩니다. 굿 모닝~ 카이오초!

클라이맥스 장면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내 스태프는 벽에 붙은 시계를 초침 하나까지 긴장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킵니다. 다른 스태프들은 출동한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창문에 긴급 탈출용 로프를 다느라 바쁘게 손을 움직입니다.

방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진 방음을 위해 문을 닫아놓는 게 보통이지만, 지금은 **PC**들이 언제든지 로프로 탈출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새어나갈까봐 남아있는 모두가 숨죽이고 **PC1**의 엔딩멘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딩 멘트와 함께 방송은 끝나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HELLO, EVERYONE!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그 때, 한 중년 남성이 스튜디오 안으로 걸어들어옵니다. **PC1**이 아는 얼굴입니다. 카이오초 라디오 전 메인진행자 코바야시 케이, 통칭 오케이 씨입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서서는 그를 막내 스태프가 저지합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폭탄이 있... 헉, 문 열어뒀지 참!”

“어어어, 광고 돌려! 광고!”

“이... 이미 늦었어요!”

“폭탄이라고요? OH MY GOD~ 대체 어디? Where에 있는 겁니까?”

오케이는 천연덕스럽게 묻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PC1**을 발견하곤 인상을 찌푸립니다.

“오... 이번에 새로 바뀐 진행자인가? 그래, 당신이지? 우리가 30년동안 공들여 진행한 방송을 망칠 사람은 **YOU**밖에 없잖아!”

오케이는 **PC1**을 몰아세우더니, 이번엔 **PC2** 쪽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AND... **YOU**도 그래! 경찰이라면서, 폭탄 하나 발견을 못한 거야? 카이오초의 LOVE & PEACE를 위해서라도... **ME**가 **Safety**하게 만들어주겠어! 비켜!”

오케이는 **PC**들을 신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탄이 있는 방송국에 그를 붙잡아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시 한 번 논쟁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의식시트 《오케이? 오케이!》를 공개합니다.

클라이맥스 전투에 앞서 스탠드배틀 여부를 묻습니다. **PL**이 스탠드 배틀을 승낙하면 스탠드<라디오 헤드>와 코바야시 케이, 거부하면 코바야시 케이만 플롯합니다.

▼데이터 정보▼

코바야시 케이	위협도 : 1	속성 : 인간	생명력 : 30
호기심	폭력	특기	<협박>,<웃음>,<원한>,<교양>
어빌리티	기본 공격 / 공격 / <협박> 위험감지 / 서포트 / <소리> 스탠드<라디오 헤드> / 서포트 / <소리>		
해설	코바야시 케이, 통칭 오케이. 카이오초 라디오의 전 메인 진행자.		
플롯	1D3+3		

스탠드<라디오 헤드>	위협도 : 1	속성 : 스탠드	생명력 : 100
어빌리티	기본 공격 / 공격 / <소리> 사물일체형 / 장비 / 없음		
해설	사물과 동화되면 그 사물을 폭탄으로 바꿀 수 있다. 동화된 폭탄은 스탠드 유저가 설정한 일정 BPM 이상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경우 폭발한다. 동화된 상태일 때는 동화된 사물의 기능에 맞게 작동한다.		
플롯	1D6랜덤(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오케이와 동일한 플롯으로)		

핸드아웃

이름	앞면	뒷면
시한 폭탄	배경 :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폭탄. 막내 스텝이 화장실에서 발견했다. 타이머가 부착되어있으며, 그 끝은 방송 종료 시각을 가리키고 있는데...	쇼크 : PC2 사실은 타이머만 붙인 모조폭탄이다. 하지만 내부를 해부해보니 다음과 같은 메모가 붙어있었다. " 아직 안심하지 마라. 진짜 폭탄을 숨겨뒀으니 " 이 비밀을 확인한 PC는 《그늘》로 공포 판정
스튜디오 마이크	배경 : 스튜디오 녹음실에 설치된 마이크. 이걸 통해 방송을 진행한다. 스튜디오 장비는 스텝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니면 함부로 만질 수 없다.	*확산 정보 쇼크 : PC1 응? 이 마이크... 선이 끊겨있다. 하지만 송출은 잘 되는 모양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비밀을 확인한 PC는 《소리》로 공포판정.
기웃대는 아이	배경 : 화장실 화장실을 찾아 스튜디오가 있는 층까지 올라온 여자아이. 물려든 경관들을 신기한 눈으로 보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돌려보내야 하지 않을까?	쇼크 : 없음 아이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 돌아왔다. "어떤 아저씨가 와서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렐어요" "[Safety] 한지도 봐달랐는데... 근데 Safety가 뭐예요?"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스태프룸	배경 : 스튜디오 사용하지 않는 음향기기들을 임시로 넣어두는 곳. 명패엔 스태프룸이라 써져 있지만, 위치가 스튜디오 옆인지라 편의상 기재 창고로 쓰고 있다. 여분용 마이크, 《녹음기》 등... 여러 기기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쇼크 : 없음 녹음기 전원이 켜져있다. 막내 스텝이 전원과 녹음 버튼을 바꿔 누르고 놔둔 모양이다. 녹음된 분량은... 시간을 보니 방송 시작 시간에 맞춰 지금까지 녹음이 진행된 것 같다. 이 비밀을 조사한 PC는 프라이즈 : 녹음기를 획득한다.

프라이즈

녹음기	지금까지의 방송이 녹음되어있다. 짜깁기를 잘하면 생방송인 척 할 수도 있겠는데? 이 프라이즈를 사용하면 10분 동안 의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프라이즈는 세 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라이즈에 비밀은 없다.
-----	---

의식 시트

오케이? 오케이!

단 계	절 차	지정 특기	참가 조건	패널티	기타
1	*폭탄의 정체를 추측한다.	지식 분야 중 아무거나	아무나	없음	폭탄의 정보가 공개된다.
2	*범인의 정체를 추측한다.	정서 분야 중 아무거나	아무나	없음	없음
3	폭탄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프라이즈:녹 음기 사용 또는 《소리》	아무나	없음	프라이즈 사용 시 자동 성공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PC의 정답 여부와 관계없이 의식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칩니다.

GM의 절차별 처리

1단계 절차 완료

마이크가 폭탄임을 맞추지 못했을 때 오케이의 반응

Hey~ 사람을 눈앞에 두고 무슨 짓들입니까? 땀청 피워도 소용없습니다! 마이크가 폭탄이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NEVER!** 없을테니까...헛!

마이크가 폭탄임을 맞췄을 때 오케이의 반응

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성인식 폭탄! 스튜디오에 있었던 게 다행이군요~ 걱정마십시오. 이 오케이, **30년** 베테랑 경력의 라디오 진행자니까요. 그 폭탄을 제게 주신다면 안전한 곳까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말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스탠드 <라디오 헤드>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2단계 절차 완료

2단계를 완료했다면 **PL**들이 오케이가 범인인 것을 알아챘으리라 가정합니다. 만약 **PL**이 오케이를 의심하지 않고 범인을 맞추기 힘들어한다면 **NPC**인 **PD**나 막내 스태프를 이용해 오케이가 범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시해주세요. 진범의 단서는 핸드아웃의 [괄호]처리된 부분에 있습니다.

오케이의 반응

ME? 진심? **REAL?** 하하! 그런 말도 안 되는... **TRASH**를 지껄이다니이이이~! 애먼 사람을 범인으로 몰다니 각오는 했겠지이이이!!

3단계 절차 완료

녹음기를 사용했을 경우 오케이의 반응

“뭣, 안 돼! **NOOOOOO~!**”

마이크와 녹음기를 향해 달려듭니다. 오케이는 마이크를 집어든 채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카이오초를 구하는 건 **ME**다! **YOU**들이 하게 둘 순 없어! 이건 내가... 앓, 해... 해제, 해제 방법은 모르는데!”

그는 당당하게 뛰어든 것이 무색하게 허우적거리다가, 마이크를 스태프들이 미리 열어두었던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날아간 폭탄은 인적이 끊긴 주차장 바닥과 부딪히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종료됩니다.

지정특기 판정에 성공했을 경우 오케이의 반응

“(PC 행동 묘사에 따라 반응) 뭐, 뭐하는 짓이야!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아? **NO!**”
“(절차를 실행한 PC를 저지한다.) **STOP!** 멈춰! 멈추라고!”

“카이오초를 구하는 건 **ME**다! **YOU**들이 하게 둘 순 없어! **OK? OKKKKKKK!**”

흥분한 오케이는 **PC** 혹은 그를 막으려는 스태프와 실랑이를 벌이다 마이크를 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어?”

폭탄은 인적이 끊긴 주차장에 그대로 안착하고, 잠간의 정적 이후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종료됩니다.

이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몰려드는 묘사와 함께 엔딩으로 넘어갑니다.

엔딩

오케이를 직접 쓰러트렸느냐, 의식시트를 완료해 무력화시켰느냐에 따라 엔딩 분기가 나뉩니다.

엔딩 1. 카이오초의 영웅

직접 오케이 격파
클라이맥스 전투에서 쓰러트렸지만, 실제로는 그의 논리를 간파한 뒤 반박했다는 설정입니다. 오케이는 결국 자신이 한 범행을 자백하고, 폭탄은 경찰의 보조 하에 안전한 곳에서 터트립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이번 일로 카이오초 라디오는 무기한 휴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엔딩 2. 굿모닝 카이오초

의식시트 완료, 무력화

오케이의 반응 ▼ (생략 가능)
“결국... 이걸로 끝인가...”
“폭탄? 진짜로 여길 터트릴리가 없잖나. 30년간 동고동락한 곳이야. 그저 잊혀지기 싫었던 노인네의 발악일 뿐... 그 PC2 앞에서 괜히 주름을 잡았군.”
“방송... 계속 듣고 있었네. 꽤 잘하던데. 재능이 있어.”
“신예가 오면 알아서 내려놔야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치 않더군. YOU는 그러지 말게.”

스탠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오케이의 사제폭탄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집니다. 오케이는 PC2의 후배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고, PC1과 PC2는 오케이를 저지한 영웅으로 마을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한편, 청자들의 열띤 요청에 따라 카이오초 라디오는 사제폭탄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하루만에 재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PC1의 두 번째 라디오 생방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작 멘트는 준비되셨나요?

(PC1가 시작 멘트를 완료하면 엔딩 장면을 종료합니다.)

공적점 계산

사명 달성 기준

PC1 ▶ <핸드아웃:기웃대는 아이> 조사 성공(=마스터 장면:무사 구출)

PC2 ▶ 의식시트 2단계 성공 (의식이 아니라 오케이를 직접 제압했을 경우, 오케이의 자백으로 뒤늦게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사명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칩니다.)

후기

짧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죠죠세인 시나리오를 목표로 작성했습니다.

플레이할 때 대사에 죠죠식 어레인지(느낌표 많이 붙이기, 『기묘한 비유』 들기 등)를 섞으면 더욱 재밌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작의 등장인물들을 카메오로 출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